

초등학생의 공격성과 사회적 선호도, 지각된 인기도의 관계: 친사회적 행동과 사회적 유능성의 조절효과*

이 승 연†

이화여자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는 초등학교 5, 6학년생을 대상으로 외현적, 관계적 공격성과 사회적 선호도 또는 지각된 인기도의 관계에서, 친사회적 행동이나 사회적 유능성이 조절효과를 보이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남녀 집단별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남녀 모두에서 공격성은 유형과 상관없이 사회적 선호도를 일관되게 낮추었으며, 친사회적 행동을 많이 하거나 사회적 유능성이 높다고 해도 이러한 부적 효과를 상쇄하지는 않았다. 한편, 남학생의 경우 외현적 공격성은 지각된 인기도를 유의하게 증가시켰고, 비일관적이긴 하지만 관계적 공격성 역시 인기도와 유의한 정적 관련성을 보였다. 여학생의 경우 관계적 공격성만이 지각된 인기도를 증가시켰다. 특히 남학생의 경우 공격성과 지각된 인기도의 관계가 친사회적 행동이나 사회적 유능성 등의 긍정적 속성들에 의해 조절되면서, 높은 공격성으로 인해 또래들로부터 거부되거나 선호도가 떨어지기는 하지만 또래집단 내에서 사회적 영향력이나 명망은 더욱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공격성이 또래집단 내에서 사회적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사용될 수 있음을 고려하여 새로운 개입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주요어 : 외현적 공격성, 관계적 공격성, 사회적 선호도, 지각된 인기도, 친사회적 행동, 사회적 유능성

* 본 논문은 2010년도 정부(교육과학기술부)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0-332-B00665)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이승연, 이화여자대학교 심리학과
Tel : 02-3277-2649, E-mail : slee1@ewha.ac.kr

청소년폭력예방재단의 2009년도 학교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많은 학생들이 ‘뺨서들(55.1%)’이나 괴롭힘(42%), 사이버폭력(41.7%), 왕따(16.9%) 등에 대해 학교폭력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약 40%의 학생들은 학교폭력의 이유를 ‘장난’이라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폭력에 대한 불감증과 함께 연구자들이 관심을 기울여야 할 부분은 공격성이 지닌 기능적 측면이다. 공격성은 흔히 분노와 좌절을 통제되지 않은 채로 부적절하게 표현하는 것으로 대인관계의 문제뿐 아니라 다양한 부적응을 초래한다고 알려져 왔다(Rose, Swenson, & Waller, 2004). 이처럼 폭력이나 공격성은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아동·청소년의 발달과정에서 사회적 지위를 높이거나 유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전략적으로 사용되고 또래집단 내에서 정적으로 강화된다는 점에서 항상 부적응적인 것만은 아니다(Pellegrini & Bartini, 2000). 최근 들어 연구자들은 또래괴롭힘이나 학교폭력에 대한 개입이 그다지 효과적이지 않은 이유가 공격성의 부적응적 측면에만 주의를 기울인 나머지, 공격성이 지닌 기능적 측면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고 있다(Swearer, Espelage, & Napolitano, 2009).

공격성은 또래거부와 고립, 우울, 불안, 비행 등 많은 부적응적인 결과와 연합되어 있는 것으로 흔히 보고되어 왔다(Coie & Dodge, 1998). 또래지위와 관련하여, Crick과 Grotpeter (1995)는 초등학교 3-6학년생 중 또래지위가 논란적인(controversial) 집단이 가장 관계적으로 공격적이었으며, 거부된 아동들이 수용 또는 무시된 집단보다 관계적 공격성이 더 높음을 보여주었다. 이경희, 오경자(1998)는 초등학교의 경우 공격성 유형에 상관없이 공격

성을 보이는 아동은 또래관계에서 거부당함을 보고하였다. 한편, Henington, Hughes, Cavell과 Thomson(1998)은 초등학교 2, 3학년생을 대상으로 외현적 공격성(신체적, 언어적 공격성)이 높은 소녀들은 관계적 공격성의 수준과는 상관없이 대부분 거부되었으며, 외현적, 관계적 공격성을 모두 높게 보이는 소년들도 대부분 거부되었음을 보고하였다. Henington 등(1998)의 연구는 성 규준과 일치하지 않는 형태의 공격성을 보일 경우 또래로부터 거부당할 수 있다는 주장의 근거로 많이 인용되고 있으며, 공격성과 또래지위의 관계에서 성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사회측정적 선호도(sociometric preference) 또는 사회적 선호도’를 사용하여 또래지위를 측정하는 이들 연구가 사회적 기술이 떨어지고, 사회정보처리 과정에 결함이 있으며, 또래로부터 거부당하는 문제아로서의 공격자를 강조하였다면, 최근 연구들은 사회적으로 유능하고 사회적 중심위치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공격자의 개념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하였다. 즉, 높은 수준의 공격성을 보임에도 또래로부터 풍부한 지지를 받고 집단 내에서 거부되지 않거나(고윤주, 김영신, 2003; Cairns, Neckerman, Gest, & Garipey, 1988), 신체적 공격성이나 지배적 특성을 보이는 인기아 집단에 대한 보고가 반복되면서(Parkhurst & Hopmeyer, 1998; Rodkin, Farmer, Pearl, & Van Acker, 2000), ‘지각된 인기도(perceived popularity)’라는 또래지위의 다른 차원이 주목받기 시작하였다. 과거에 인기도를 변인으로 사용한 대부분의 연구는 실제로는 사회적 선호도를 측정하고 있으며, 혼동을 피하기 위해 ‘지각된 인기도’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지각된 인기도는 사회적 명망이나 영향력과

연합된 개념으로, 또래로부터 선호된다고 해서 사회적 명망이나 영향력이 있지 않고, 또래로부터 인기가 있다고 해서 또래집단 내에서 선호되거나 수용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둘은 서로 분리된 개념으로 간주된다(Lease, Kennedy, & Axelrod, 2002). 초등학교 고학년 대상의 Lease 등(2002)의 연구에서 지각된 인기도와 사회적 선호도를 구분하는 주요한 특징은 사회적 배척이나 괴롭힘 행동으로, 지각된 인기도가 높지만 선호되지 않는 학생들의 경우 관계적 공격성이 높았다. 마찬가지로 Adler와 Adler(1998)도 지각된 인기도가 높은 초등학생들이 관계적으로 공격적인 책략을 사용하여 사회적 우위를 유지하고자 함을 보여주었다. 이처럼 관계적 공격성이 높은 일부 아동·청소년이 지각된 인기도가 상당히 높다는 연구 결과가 보고되면서, 이러한 집단의 특성에 대한 연구(예, Puckett, Aikins, & Cillessen, 2008; Rose et al., 2004; Walcott, Upton, Bolen, & Brown, 2008)가 활성화되었다. 그 결과, 종단연구를 통해 관계적 공격성이 지각된 인기도를 높일 뿐 아니라(Rose et al., 2004), 지각된 인기도의 증가가 관계적 공격성의 증가를 가져온다는 것(Cillessen & Mayeux, 2004)도 밝혀졌다. 즉, 아동들은 사회적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관계적 공격성을 사용할 뿐 아니라, 자신의 사회적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도 관계적 공격성을 사용한다.

다른 사람을 해치려는 의도를 가지고 사회적 관계나 명성을 고의적으로 조작하는 관계적 공격성(Crick & Grotpeter, 1995)은 사회적 상황을 읽고 해독하는 능력에 기반한다(Puckett et al., 2008). 따라서 또래관계가 매우 중요해질 뿐 아니라 사회적, 인지적 능력이 더욱 발달하게 되는 청소년기에 또래집단(cliques)의 경

계를 확립하고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다 흔하게 사용되기 시작한다(Prinstein, Boergers, & Vernberg, 2001). 또한 관계적 공격성은 부모나 교사 등의 비난이나 처벌을 피하는 상대적으로 안전한 방법으로 점차 더 많이 사용되게 된다(Young, Boye, & Nelson, 2006).

이러한 관계적 공격성은 주로 여자들이 사용하는 공격성 유형으로 알려져 있으나, 성차에 대한 연구결과는 비일관적이다. 즉,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관계적 공격성은 소년보다는 소녀에게서 더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나(이경희, 오경자, 1998; Crick & Grotpeter, 1995), 소년에게서 유의하게 더 많이 나타나기도 한다(Henington et al., 1998). 심희옥(2007)은 초등학생 대상의 종단연구를 통해, 또래괴롭힘 가해에 연루된 소녀의 경우에만 소년보다 관계적 공격성이 더 높았음을 밝히기도 하였다. 분명한 것은 여자들은 도구성이나 신체적 우월함에 근거한 신체적 공격성보다는 관계적 공격성을 더 많이 사용한다는 것이다(Olweus, 1984; Prinstein et al., 2001). 한편, 남자들은 여자들에 비해 신체적, 언어적인 외현적 공격성을 더 많이 사용한다(이경희, 오경자, 1998; Crick & Grotpeter, 1995).

물론 관계적 공격성을 보이는 아동·청소년의 경우 외현적 공격성 또한 높고, 두 공격성 유형 간에는 중간 정도의 상관관계가 존재한다(예, $r = .63$ in Crick, 1997, $r = .52$ in Prinstein et al., 2001). 이러한 상관관계는 한 공격성에서의 분산이 다른 공격성에 의해 약 25-36%정도 설명됨을 보여주며, 공격적 청소년들 중 단지 25-40% 정도만이 두 유형의 공격성을 모두 보일 뿐이라는 사실은 외현적, 관계적 공격성이 서로 분리된 개념임을 입증한다(Rose et al., 2004). 그러나 이러한 상관관계로 인해 어느 한 유형의

공격성을 연구할 때 다른 유형의 공격성은 통계적으로 통제해야 한다(Loudin, Loukas, & Robinson, 2003; Rose & Swenson, 2009).

예를 들어, 외현적, 관계적 공격성과 지각된 인기도의 관계를 살펴보았던 Rose 등(2004)의 연구에서 관계적 공격성과 지각된 인기도의 관계는 외현적 공격성을 통제할 경우에도 여전히 정적으로 관련이 있었으나, 외현적 공격성과 지각된 인기도는 관계적 공격성을 통제하게 되면 관련성이 없었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중학교 1, 3학년 집단에서만 보고되었고, 초등학교 3, 5학년 집단에서는 공격성 유형과 지각된 인기도 간의 관련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공격성 유형과 지각된 인기도의 관계가 발달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Cillessen과 Mayeux(2004)는 10-14세 아동 대상의 종단연구의 일부로서, 초등학교 5, 6학년 각각에 대해 공격성 유형과 사회적 선호도 또는 지각된 인기도의 관계를 회귀분석으로 검증하였다. 그 결과, 공격성 유형과 상관없이 공격성이 높을수록 사회적 선호도가 감소하고 지각된 인기도가 증가하였으나, 신체적 공격성과 사회적 선호도, 관계적 공격성과 지각된 인기도의 이러한 관계는 초등학교 6학년 소녀에게서 더 강력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공격성 유형과 지각된 인기도의 관계가 성에 따라 조절되지 않는다는 Rose 등(2004)의 연구결과와는 차이가 있으며, 성에 따른 관계의 양상을 재검증해야 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처럼 지각된 인기도와 사회적 선호도를 구분하여 공격성 유형과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는 매우 드물다.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도금혜, 최보가, 이지민(2005)의 연구에서 사회적 선호도는 여학생 집

단에서만 외현적, 관계적 공격성과 유의한 부적 상관을 나타냈고, 지각된 인기도는 남녀 모두에서 정적 상관을 보였다. 같은 표본을 사용하여, 도금혜, 최보가, 이지민(2006)은 지각된 인기도가 높은 학생들이 인기도가 보통이거나 낮은 집단에 비해 외현적, 관계적 공격성이 더 높음을 보여주었다. 한편, Rose 등(2004)의 보고와는 달리, 김동현과 이규미(2010)는 초등학교 5, 6학년을 대상으로 소년과 소녀 모두 외현적, 관계적 공격성은 사회적 선호도와는 부적 상관, 지각된 인기도와는 정적 상관을 가짐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결과는 Cillessen과 Mayeux(2004)의 회귀분석 결과와 유사하다. 그러나 이러한 관계는 공격성을 자기보고식이 아니라 또래지명에 의해 측정했을 경우에만 나타났다. 초등학생 연구의 경우 외국의 선행연구들처럼 자기보고식보다는 또래지명에 의해 공격성을 측정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이 세 연구 모두 외현적, 관계적 공격성 간의 중첩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통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회적 선호도 및 지각된 인기도와의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결과를 정확히 해석하는데 무리가 있으며, 단순히 집단 간 차이나 변인들 간의 상관을 보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제한점을 지닌다. 이와는 달리, 도금혜와 최보가(2007)는 회귀분석을 통해 외현적, 관계적 공격성이 높은 것은 ‘인기 있는 친구’로 지명 받은 빈도와 관련이 없었으나, 외현적, 관계적 공격성이 낮은 것은 ‘인기 없는 친구’로 지명 받은 빈도를 유의하게 예측함을 보고하였다. 이는 공격성이 어느 정도 있는 것이 지각된 인기도를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긴 하지만, 공격성 그 자체로는 더 높은 수준의 인기를 가져오지 않는다는 것을 의

미한다. 마찬가지로 외현적, 관계적 공격성이 높은 지각된 인기도 뿐 아니라 낮은 인기도와도 관련이 있다는 연구(Prinstein & Cillessen, 2003), 그리고 지각된 인기도가 친사회적, 공격적 행동 모두와 연합되어 있다는 연구(Lease et al., 2002; Parkhurst & Hopmeyer, 1998)는 공격성과 지각된 인기도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조절변인의 존재를 가정하도록 만든다.

실제로 Puckett 등(2008)은 관계적 공격성이 피해자나 집단역동에 미치는 부적 효과로 인해 또래거부를 일으키게 될 것임에도 지속적으로 지각된 인기도를 높이는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 또래수용이나 선호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밝혀진 친사회적 행동, 공감, 학업적 성취 등 여러 긍정적 속성에 주목하였다. 그들은 이러한 긍정적 속성이 관계적 공격성의 부적 효과와 상호작용하여 지각된 인기도를 높일 뿐 아니라, 사회적 선호도에 미치는 부적 효과 역시 줄일 수 있을 것이라 가정하였다. 중 1, 2학년을 대상으로 한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관계적 공격성을 많이 보이지만 동시에 사회적 자기효능감, 지도력, 협동심, 사교성이 많은 청소년들이 지각된 인기도가 더 높음을 알 수 있었다. 즉, 관계적 공격성을 이러한 긍정적 속성과 교대로 사용할 경우, 관계적 공격성이 지닌 부적 효과가 상쇄되면서 동시에 또래에 대한 사회적 영향력과 우위를 갖게 되는 것으로 보인다. 사회적 선호도의 경우 중2 집단에서 협동심의 조절효과만이 유의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관계적 공격성이 친사회적 맥락에서 능숙하게 사용되는 것이 지각된 인기도를 높일 수는 있어도, 대부분의 경우 또래거부를 줄이지는 않음을 보여준다.

Puckett 등(2008)의 연구는 외현적 공격성과 또래지위, 특히 지각된 인기도의 관계에 대해

서는 관심이 없었다. 그러나 관계적 공격성을 보이는 아동들은 외현적 공격성 또한 많이 보이므로 외현적 공격성의 역할에 대해 무시할 수만은 없다(Rose et al., 2004). 특히 외현적 공격성은 어린 연령에서 더 흔하게 사용되며(이경희, 오경자, 1998) 초등학생의 경우 또래집단 내에서의 사회적 우세나 지배성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초등학생 대상 연구에서 외현적 공격성과 지각된 인기도 간의 정적 상관(김동현, 이규미, 2010; LaFontana & Cillessen, 2002)이 보고되었고, 외현적 공격성이 지각된 인기도를 정적으로 예측함이 보고된 적이 있다(Cillessen & Mayeux, 2004). Puckett 등(2008)의 연구는 외현적 공격성에 관심이 없었을 뿐 아니라, 관계적 공격성의 효과를 검토할 때 외현적 공격성을 통계적으로 통제하지도 않았다.

본 연구는 Puckett 등(2008)의 연구와 마찬가지로 관계적으로 공격적인 아동들이 사회적 선호도는 낮지만 여전히 또래집단 내에서 지각된 인기도가 높고 사회적 영향력을 지니는 현상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앞서 언급되었듯이 관계적 공격성 뿐 아니라 외현적 공격성에도 주의를 기울여 지각된 인기도와의 관계를 살펴보고, 이러한 관계를 친사회적 행동, 사회적 유능성이 조절하는지 검토해 보고자 하였다. 도움행동이나 협동심으로 대표되는 친사회적 행동 뿐 아니라, 사회적 기술 또는 유능성은 또래수용과 관련이 있는 주요 변인으로(심희옥, 2007; Lease et al., 2002; Puckett et al., 2008), 본 연구에서는 이 두 변인을 조절변인으로 상정하였다. 공격성과 친사회적 행동이 서로 양립불가능한 것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여자 중학생 집단에서 또래괴롭힘 가해행동과 방어행동 간에 상관이 무의

미했으며(송경희, 이승연, 2010), 또래지위의 두 유형과 공감, 가해 및 방어행동 간의 상호작용과 구조적 관계를 살펴본 Caravita, Di Blasio, Salmivalli(2009)의 연구에서도 8-10세 남녀 집단 각각, 11-14세 여학생 집단의 경우 가해와 방어행동 간 경로계수가 무의미했다. 공격성과 친사회적 행동 간의 관계는 성과 발달 연령에 따라, 또는 어떤 사회적 맥락에서 누구에게 행해진 행동이냐에 따라 공존가능한 행동일 수 있다. 또한, 비교 목적에서 공격성과 사회적 선호도의 부적 관계 역시 이러한 조절변인들의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지를 재검증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학교폭력이나 또래괴롭힘이 초등학교로 하향 확대되는 최근 동향(청소년폭력 예방재단, 2009)은 물론이고, 공격성 유형과 지각된 인기도의 관계가 초등학교의 경우 비일관적으로 나타나는 현상(김동현, 이규미, 2010; Cillesson & Mayeux, 2004; Rose et al., 2004)을 고려하여 초등학교 5, 6학년을 대상으로 연구를 실시하였다. 모든 분석은 남녀 집단별로 이루어졌는데, 이는 성에 따라 공격성 유형과 또래지위 간의 관계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선행연구에 근거한 것이다. 이 때 종속변인이 아닌 다른 또래지위 차원(Cillessen & Mayeux, 2004; Puckett et al., 2008)과 관심의 대상이 아닌 공격성 유형을 먼저 통계적으로 통제하였다. 본 연구는 공격성이 어떤 조건에 의해 적응적이 되는지를 살펴보고, 학교장면에서 학교폭력이나 괴롭힘의 개입과 관련한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방 법

연구대상

2010년 12월 한 달 동안 서울시, 경기도 및 대구시에 위치한 8개 초등학교 5, 6학년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실시하였다. 수거된 총 371개의 설문지 중 불성실하게 응답한 18명의 자료를 제외하고, 남자 186명(52.7%), 여자 167명(47.3%)으로 총 353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의 연령 범위는 만 10세~13세이며, 평균연령은 11.36세($SD=.59$)였다.

측정도구

또래지위

또래지위를 측정하기 위해서 “가장 좋아하는 사람(liked most: LM),” “가장 싫어하는 사람(liked least: LL),” “가장 인기가 있는 사람(most popular: MP),” 그리고 “가장 인기가 없는 사람(least popular: LP)”이 누구인지 묻는 4개 질문 각각에 대하여, 같은 학급 또래의 이름을 성별에 관계없이 최대 3명까지 기입하도록 하였다. Puckett 등(2008)의 방법대로 각 질문에 대해 학생들이 받은 지명 수를 합산하고, 이를 학급별 평균과 표준편차를 사용하여 표준화하여 사용하였다. 사회적 선호도는 ‘가장 좋아하는’ 지명 수에서 ‘가장 싫어하는’ 지명 수를 뺀 값(LM-LL)이며, 지각된 인기는 ‘가장 인기가 있는’ 지명 수에서 ‘가장 인기가 없는’ 지명 수를 뺀 값(MP-LP)이다. 이렇게 구해진 사회적 선호도와 지각된 인기도 점수는 다시 각 학급별로 표준화하여 사용하였다.

공격성 유형과 친사회적 행동

공격성과 친사회적 행동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되어 온 국내의 또래지명 도구들은 문항 구성과 내용이 인용된 원척도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문항구성과 내용을 바로 잡기 위해, Crick과 Grotmeter(1995), Grotmeter와 Crick(1996), Crick(1997)의 9-12세 대상 또래지명 도구들을 검토하였다. 이 세 연구에서 사용된 도구들은 척도의 내용면에서 거의 중첩되었으나, Crick과 Grotmeter(1995)에서는 12문항(외현 3문항, 관계 4문항, 친사회 5문항), Grotmeter와 Crick(1996)에서 12문항(각각 4문항, 4문항, 4문항), 그리고 Crick(1997)에서 14문항(각각 5문항, 5문항, 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또래지명을 부담스러워 하는 일선 교사와 학생들의 특징을 고려하여 각 척도의 가장 일반적인 내용을 반영하되 문항 수를 줄일 수 있게 노력하였고, 외현적 공격성 3문항, 관계적 공격성 4문항, 친사회적 행동 4문항의 총 11개 문항으로 또래지명 설문지를 재구성하였다.

학생들은 같은 학급 또래들 중에서 각 항목에 해당하는 학생의 이름을 최대 3명까지 기입하였다. 각 문항에 대하여 각 학생이 또래로부터 받은 지명의 수를 합산 후, 학급별로 표준화하였다. 위 연구자들이 사용한 원래 방법대로, 하위척도 점수는 각 하위척도의 문항별 표준점수들을 합산하여 구하였다. 본 연구에서 각 하위척도의 내적합치도는 외현적 공격성 $\alpha = .89$, 관계적 공격성 $\alpha = .86$, 친사회적 행동 $\alpha = .81$ 로 나타났다.

사회적 유능성

박금옥(1998)이 개발한 사회적 능력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사교성, 대인적응성, 사회참여도, 주도성, 인기도(각 10문항씩)의 5개 하위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나, 본 연구에서 또래지명으로 지각된 인기도를 측정하기 때문

에 인기도 하위척도는 제외하였다. 5점 likert 척도(1: 전혀 그렇지 않다 - 5: 매우 그렇다) 상에 반응하도록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유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초등학교 4-6학년층을 대상으로 한 정승민(2005)의 연구에서 전체 문항의 내적합치도는 $\alpha = .97$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alpha = .96$ (사교성 $\alpha = .87$, 대인적응성 $\alpha = .86$, 사회참여도 $\alpha = .91$, 주도성 $\alpha = .90$)이었다.

자료분석

회수된 설문자료를 SPSS 18.0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척도들의 신뢰도 파악을 위해 내적합치도(Cronbach's α)를 산출하였으며, 기술통계,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공격성과 사회적 선호도 또는 지각된 인기도 간의 관계를 친사회적 행동이나 사회적 유능성이 조절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지각된 인기도와 사회적 선호도 간의 상관을 고려하여 종속변인이 아닌 또래지위 유형을 1단계에서 통제하였으며, 외현적, 관계적 공격성의 상관을 고려하여 연구관심이 아닌 공격성 유형 또한 1단계에서 통제하였다. 2단계에서 연구관심인 공격성 유형과 조절변인을 함께 투입하고, 공격성과 조절변인 간의 상호작용항을 마지막 3단계에 투입하였다.

조절변인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Aiken과 West(1991)의 분석방법을 따랐다. 예측변인과 상호작용항 간의 다중공선성 문제를 줄이기 위해 표준화 점수를 분석에 사용하였으며 (Frazier, Tix, & Barron, 2004), 상호작용항의 β 계수는 적절히 표준화되지도 않고 해석할 수도 없으므로 비표준화 값인 B계수를 사용하여 결과를 해석하였다(Aiken & West, 1991). 위계

적 회귀분석에서 단계별로 변인 투입 시 각 모델의 R²와 R²변화량을 표에 제시하였으나, B와 β계수의 경우 최종모델의 결과만을 제시하였다.

결 과

성별에 따른 측정변인들의 기술통계 및 차이 검증

측정변인들의 평균과 표준편차, 성차검증 결과를 표 1에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초등학교생들은 남학생의 외현적 공격성이 여학생보다 더 높고($t=7.33, p<.001$),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친사회적 행동을 덜 하는 것으로 평정하였다($t=-3.54, p<.001$). 한편 여학생의 사회적 유능성은 남학생보다 유의하게 더 높은 것으로($t=-2.19, p<.05$) 보고되었다. 관계적 공격성, 지각된 인기도와 사회적 선호도에서 성차는 유의하지 않았다.

성별에 따른 측정변인들 간 상관분석

Pearson 상관분석 결과(표 2 참조), 사회적 선호도와 지각된 인기도 간에는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었다(남: $r=.56$, 여: $r=.60, p<.001$). 그러나 사회적 선호도가 남녀 모두에서 공격성의 두 유형과 유의한 부적 상관($r=-.35 \sim -.44, p<.001$)을 나타냈던 반면, 지각된 인기도는 남녀 모두 외현적 공격성과는 상관이 유의하지 않았으며 남자의 경우에만 관계적 공격성과 경미한 정적 상관($r=.16, p<.05$)을 보였다. 한편, 친사회적 행동과 사회적 유능성은 남녀 모두 지각된 인기도, 사회적 선호도와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

외현적 공격성과 관계적 공격성 간에는 남녀 모두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었다(남: $r=.62$, 여: $r=.53, p<.001$). 그러나 외현적 공격성은 남녀 모두 친사회적 행동과 경미한 부적 상관을 보였던 반면($r=-.16, p<.05$), 관계적 공격성은 여자의 경우에만 친사회적 행동과 부적 상관을 보였다($r=-.25, p<.01$). 공격성의 두 유형과 사회적 유능성 간에는 남녀 모두 상관관계가 유의하지 않았다.

표 1. 성별에 따른 측정변인들의 기술통계 및 차이검증

	남학생(n=186)	여학생(n=167)	t(df)	p
	M(SD)	M(SD)		
사회적 선호도	-.03(1.02)	.03(.90)	-.54(348)	.59
지각된 인기도	.07(1.07)	-.04(.86)	1.00(344.51)	.32
외현적 공격성	.85(3.21)	-.99(1.10)	7.33(229.35)***	.00
관계적 공격성	-.25(3.09)	.26(3.43)	-1.49(347)	.14
친사회적행동	-.57(2.55)	.62(3.59)	-3.54(292.36)***	.00
사회적 유능성	137.94(24.77)	143.55(23.26)	-2.19(351)*	.03

* $p<.05$, ** $p<.01$, *** $p<.001$

표 2. 성별에 따른 측정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1	2	3	4	5
1. 사회적 선호도	남	-				
	여	-				
2. 지각된 인기도	남	.56***	-			
	여	.60***	-			
3. 외현적공격성	남	-.44***	.13	-		
	여	-.38***	-.02	-		
4. 관계적공격성	남	-.35***	.16*	.62***	-	
	여	-.42***	.01	.53***	-	
5. 친사회적행동	남	.50***	.42***	-.16*	-.02	-
	여	.54***	.52***	-.16*	-.25**	-
6. 사회적유능성	남	.28***	.43***	-.03	.12	.30***
	여	.29***	.22**	.00	-.12	.24**

* $p < .05$, ** $p < .01$, *** $p < .001$

공격성과 사회적 선호도의 관계에서 친사회적 행동의 조절효과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표 3 참조), 남녀 모두 관계적 공격성을 통제하더라도 외현적 공격성은 사회적 선호도를 부적으로 예측하였다. 외현적 공격성이 높을수록 선호도가 낮아지는 이러한 양상은 여학생($\beta = -.19, p < .01$)보다는 남학생($\beta = -.35, p < .001$)에게서 더 강하게 나타났다. 남녀 모두 친사회적 행동을 많이 할수록 선호도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었으나(남: $\beta = .21, p < .001$, 여: $\beta = .24, p < .05$), 친사회적 행동의 조절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한편, 외현적 공격을 통제하더라도 관계적 공격성과 사회적 선호도 간의 부적 관계는 남녀 모두에서 유의하였다(남: $\beta = -.22, p < .001$, 여: $\beta = -.28, p < .01$). 남녀 모두에서 친사회적

행동과 선호도 간의 정적 관계가 유의하였으나(남: $\beta = .21, p < .001$, 여: $\beta = .19, p < .01$), 조절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공격성과 지각된 인기도의 관계에서 친사회적 행동의 조절효과

사회적 선호도 대신 지각된 인기도를 종속변인으로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할 경우(표 4 참조), 남학생 집단에서는 외현적 공격성이 높을수록($B = .15, \beta = .46, p < .001$), 친사회적 행동을 많이 할수록($B = .07, \beta = .16, p < .01$) 인기도가 높았다. 그러나 외현적 공격성과 친사회적 행동 간의 상호작용($B = .03, p < .001$) 또한 지각된 인기도 변량의 3%를 추가로 설명하였다. 상호작용 패턴을 분석한 결과, 외현적 공격성과 지각된 인기도의 관계는 친사회적 행

표 3. 성별에 따른 공격성과 사회적 선호도 간의 관계에서 친사회적 행동의 조절효과

		남학생				여학생			
		B	β	R^2	ΔR^2	B	β	R^2	ΔR^2
단계1	지각된 인기도	.53	.56***	.51	.51***	.53	.51***	.54	.54***
	관계	-.07	-.22***			-.07	-.28***		
단계2	외현	-.11	-.35***	.64	.13***	-.15	-.19**	.59	.05***
	친사회적행동	.08	.21***			.06	.24*		
단계3	외현*친사회적행동	-.00	-.02	.64	.00	.01	.08	.59	.00
단계1	지각된 인기도	.53	.56***	.58	.58***	.54	.51***	.50	.50***
	외현	-.11	-.34***			-.16	-.19**		
단계2	관계	-.07	-.22***	.64	.06***	-.07	-.28**	.59	.09***
	친사회적행동	.08	.21***			.05	.19**		
단계3	관계*친사회적행동	.00	-.00	.64	.00	.00	.03	.59	.00

* $p < .05$, ** $p < .01$, *** $p < .001$

표 4. 성별에 따른 공격성과 지각된 인기도 간의 관계에서 친사회적 행동의 조절효과

		남학생				여학생			
		B	β	R^2	ΔR^2	B	β	R^2	ΔR^2
단계1	사회적 선호도	.72	.68***	.46	.46***	.58	.61***	.45	.45***
	관계	.06	.17**			.07	.26***		
단계2	외현	.15	.46***	.53	.07***	.10	.12	.51	.06***
	친사회적행동	.07	.16**			.09	.38**		
단계3	외현*친사회적행동	.03	.22***	.56	.03***	.02	.12	.51	.00
단계1	사회적 선호도	.72	.68***	.49	.49***	.58	.61***	.42	.42***
	외현	.12	.37***			.09	.11		
단계2	관계	.07	.21**	.53	.04**	.07	.27***	.51	.09***
	친사회적행동	.08	.18**			.07	.29***		
단계3	관계*친사회적행동	.03	.18**	.56	.03**	.00	.03	.51	.00

* $p < .05$, ** $p < .01$,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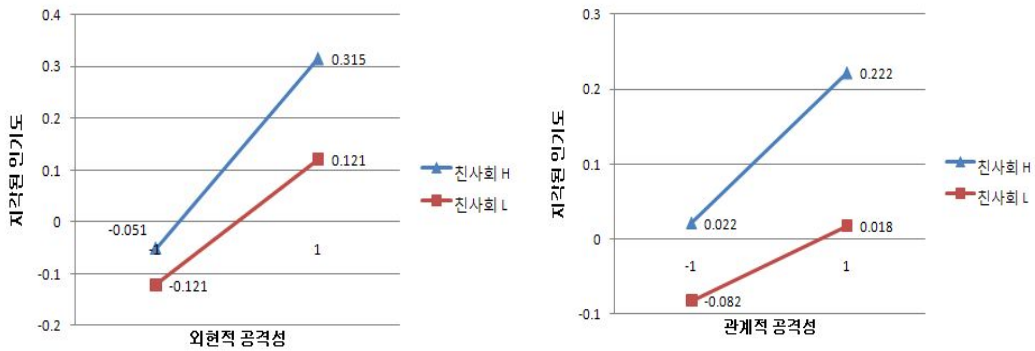


그림 1. 남학생의 공격성과 지각된 인기도 간 관계에서 친사회적 행동의 조절효과

동이 많은 경우($B=.18, t=6.18, p<.001$)가 친 사회적 행동이 적은 경우($B=.12, t= 5.42, p<.001$)보다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1 참조).

남학생의 경우 외현적 공격성을 통제하더라도 관계적 공격성과 지각된 인기도의 관련성이 유의하였으며($B=.07, \beta=.21, p<.01$), 친사회적 행동도 인기도를 정적으로 예측하였다($B=.08, \beta=.18, p<.01$). 그러나 관계적 공격성과 친사회적 행동 간의 상호작용 역시 유의하였다($B=.03, p<.01$). 친사회적 행동을 많이 할 경우 관계적 공격성이 인기도를 정적으로 예측하였으나($B=.10, t=4.17, p<.001$), 친사회적 행동이 적을 경우에는 관계적 공격성과 인기도 간의 관계는 유의하지 않았다(그림 1 참조).

한편, 여학생의 경우 관계적 공격성이 먼저 통제되면 외현적 공격성은 지각된 인기도를 유의하게 예측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외현적 공격성을 통제하더라도 관계적 공격성은 여전히 지각된 인기도를 정적으로 예측하였다($\beta=.27, p<.001$). 친사회적 행동은 남학생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지각된 인기도를 정적으로 예측하였으나($\beta=.38, p<.01$ & $\beta=.29, p<.001$),

남학생 집단과는 달리 조절효과를 보이지 않았다.

공격성과 사회적 선호도의 관계에서 사회적 유능성의 조절효과

친사회적 행동 대신 사회적 유능성을 조절 변인으로 사용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표 5 참조). 관계적 공격성을 통제할 경우 남녀 모두 외현적 공격성이 높을수록(남: $\beta=-.41, p<.01$, 여: $\beta=-.19, p<.05$) 사회적 선호도는 감소하였다. 외현적 공격성을 통제할 경우 남녀 모두 관계적 공격성은 선호도를 부정적으로 예측하였다(남: $\beta=-.17, p<.05$, 여: $\beta=-.31, p<.001$). 사회적 유능성은 주효과와 조절효과 모두 유의하지 않았다.

공격성과 지각된 인기도의 관계에서 사회적 유능성의 조절효과

사회적 선호도 대신 지각된 인기도를 종속 변인으로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표 6 참조), 남학생의 경우 외현적 공격성이 높을수록($B=.13, \beta=.38, p<.001$), 사회적 유능성이

표 5. 성별에 따른 공격성과 사회적 선호도의 관계에서 사회적 유능성의 조절효과

		남학생				여학생			
		B	β	R^2	ΔR^2	B	β	R^2	ΔR^2
단계1	지각된 인기도	.63	.66***	.51	.51***	.62	.60***	.54	.54***
	관계	-.07	-.20**			-.08	-.32***		
단계2	외현	-.13	-.41***	.61	.10***	-.16	-.19**	.57	.03**
	사회적유능성	.03	.03			-.02	-.01		
단계3	외현*사회적유능성	-.02	-.08	.61	.00	-.03	-.04	.57	.00
단계1	지각된 인기도	.62	.65***	.58	.58***	.62	.59***	.50	.50***
	외현	-.13	-.42***			-.16	-.20**		
단계2	관계	-.06	-.17*	.61	.03**	-.08	-.31***	.57	.07***
	사회적유능성	.01	.01			.02	.02		
단계3	관계*사회적유능성	-.02	-.07	.61	.00	-.01	-.05	.57	.00

* $p < .05$, ** $p < .01$, *** $p < .001$

표 6. 성별에 따른 공격성과 지각된 인기도의 관계에서 사회적 유능성의 조절효과

		남학생				여학생			
		B	β	R^2	ΔR^2	B	β	R^2	ΔR^2
단계1	사회적 선호도	.73	.69***	.46	.46***	.68	.71***	.45	.45***
	관계	.05	.15*			.07	.26***		
단계2	외현	.13	.38***	.57	.11***	.10	.13	.48	.03**
	사회적유능성	.19	.18**			.06	.06		
단계3	외현*사회적유능성	.05	.18**	.59	.02**	-.09	-.13	.49	.01
단계1	사회적 선호도	.73	.70***	.48	.48***	.69	.72***	.42	.42***
	외현	.13	.39***			.09	.11		
단계2	관계	.03	.08	.56	.08***	.07	.27***	.48	.06***
	사회적유능성	.25	.23***			.15	.16**		
단계3	관계*사회적유능성	.04	.15**	.58	.02**	-.01	-.03	.48	.00

* $p < .05$, ** $p < .01$,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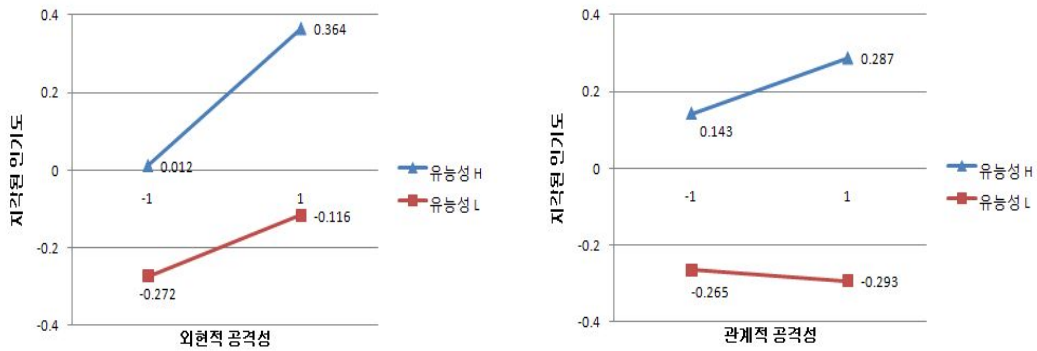


그림 2. 남학생의 공격성과 지각된 인기도 간 관계에서 사회적 유능성의 조절효과

높수록($B=.19, \beta=.18, p<.01$), 인기도는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그러나 외현적 공격성과 사회적 유능성 간의 상호작용($B=.05, p<.01$) 또한 유의하였으며 지각된 인기도의 변량을 추가로 2% 설명하였다. 상호작용 패턴을 분석한 결과(그림 2 참조), 외현적 공격성과 인기도 간의 정적 관계는 사회적 유능성이 낮은 경우보다는($B=.08, t=3.30, p<.01$) 사회적 유능성이 높은 경우($B=.18, t=6.15, p<.001$)에 더 강하였다.

외현적 공격성을 통제하게 되면 남학생의 관계적 공격성은 지각된 인기도와 관련이 없었다. 여전히 사회적 유능성이 높을수록 인기도는 증가하였으며($B=.25, \beta=.23, p<.001$), 관계적 공격성과의 상호작용도 지각된 인기도 변량의 2%를 추가로 설명하였다($B=.04, p<.01$). 상호작용 패턴을 분석한 결과(그림 2 참조), 관계적 공격성과 지각된 인기도 간의 정적 관계는 사회적 유능성이 높을 경우에만 나타났다($B=.07, t=3.19, p<.01$).

남학생과는 반대로, 여학생의 경우 관계적 공격성을 통제하게 되면 외현적 공격성은 지각된 인기도를 예측하지 못하였으나, 관계적 공격성은 외현적 공격성을 통제하더라도 지각된 인기도를 여전히 유의하게 예측하였다

($B=.07, \beta=.27, p<.001$). 사회적 유능성은 관계적 공격성이 예측변인일 경우에만 인기도를 정적으로 예측하였으나($B=.15, \beta=.16, p<.01$), 조절효과는 모두 나타나지 않았다.

논 의

본 연구는 초등학교 5, 6학년생을 대상으로 외현적, 관계적 공격성과 사회적 선호도 또는 지각된 인기도 간의 관계에서 친사회적 행동이나 사회적 유능성과 같은 긍정적인 속성이 조절효과를 보이는지를 남녀 집단별로 검토하고자 하였다. 먼저, 본 연구의 초등학생들은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외현적 공격성을 더 많이 보이지만, 관계적 공격성에서는 성차가 없는 것으로 평정하였다. 관계적 공격성에서 남녀 차이가 없었던 이러한 결과는 초등학교 고학년(O'Connell, Pepler, & Kent, 1995, Henington et al., 1998에서 재인용), 그리고 중·고등학생(도금혜 등 2006; Prinstein et al., 2008)을 대상으로 한 일부 선행연구와 일치한다. 한편, 상관분석에서 사회적 선호도의 경우 남녀 모두 외현적, 관계적 공격성과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던 반면, 지각된 인기도는 남학생의 관계적 공격성에서만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이는 남녀 모두에서 관계적 공격성과 지각된 인기도 간의 정적 상관을 보였던 연구(김동현, 이규미, 2010; LaFontana & Cillessen, 2002)와는 차이가 있으나, 외현적, 관계적 공격성 간의 상관($r=.53 - .62$), 사회적 선호도와 지각된 인기도의 상관($r=.56 - .60$)을 고려한다면 단순상관분석으로 공격성과 또래 지위 간의 관계를 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무리일 수 있다.

공격성 유형과 지각된 인기도 또는 사회적 선호도 간의 관계에서 친사회적 행동 또는 사회적 유능성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위계적 회귀분석을 통해, 먼저 남녀 모두에서 외현적, 관계적 공격성은 서로를 통제한다고 해도 여전히 사회적 선호도를 부적으로 예측함을 알 수 있었다. 즉, 공격성의 형태와는 무관하게 공격성은 또래로부터의 거부와 혐오를 유발하였다(Coie & Dodge, 1997; Kupersmith & Coie, 1990).

그러나 외현적 공격성이 높을수록 사회적 선호도가 감소하는 이러한 양상은 여학생보다는 남학생에게서 더 강하였으며(남: $\beta=-.35$ 또는 $-.41$ vs. 여: $\beta=-.19$), 관계적 공격성이 사회적 선호도를 떨어뜨리는 정도는 여학생에게서 더 강하였다(남: $\beta=-.22$ 또는 $-.17$ vs. 여: $\beta=-.28$ 또는 $-.31$). 이러한 발견은 성 규준과 일치하지 않는 공격성을 보일 경우 또래로부터 더욱 거부당한다는 Henington 등(1998)의 주장과는 상반된다. 본 연구의 초등학교들은 자신의 성에 전형적이라고 간주되는 공격성 유형을 많이 보일수록 선호도가 더 떨어졌다. Henington 등(1998)의 연구에서 외현적 공격성을 많이 보이는 소녀의 경우 관계적 공격성의

수준과 상관없이 또래로부터 거부당하였으며, 외현적, 관계적 공격성 모두를 많이 보이는 소년들이 가장 많이 거부당하였다. 그러나 그들 연구에서 간과된 부분은 관계적 공격성만 높은 소년들은 11%를 제외하고는 거의 거부당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외현적, 관계적 공격성을 모두 많이 보이는 소년이라면 전체적 공격성 수준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고, 성 규준과의 불일치 여부가 아니라 이러한 높은 수준의 공격성이 또래거부를 야기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더 옳을 것이다.

실제로 초등학교 4-8학년 대상의 LaFontana와 Cillessen(2002) 연구에서 관계적 공격성과 사회적 선호도 간의 상관은 남학생의 경우에는 유의하지 않았고, 여학생의 경우에만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한 Crick(1996)의 연구에서 여학생의 경우, 관계적 공격성과 6개월 후의 또래거부 간의 상관이 외현적 공격성과 또래거부 간의 상관보다 훨씬 강했다. 또한 중학생 대상의 연구이긴 하지만 Puckett 등(2008)의 연구에서도 관계적 공격성이 사회적 선호도를 떨어뜨리는 경향성은 여학생에게서 더욱 강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의 발견과 부분적으로 일치하며, 사용된 공격성 유형이 성 규준과 불일치해서 사회적 선호도가 떨어지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오히려 자신의 성에 규준적이라 생각되는 공격성 유형을 다른 유형에 비해 더 많이 사용하게 되면서, 선호도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 또한 커지는 것일 수 있다.

한편, 공격성과 지각된 인기도의 관계를 살펴보면 남학생의 경우 외현적 공격성은 관계적 공격성을 통제하더라도 여전히 지각된 인기도를 정적으로 예측하였다. 관계적 공격성

은 친사회적 행동이 조절변인일 경우 지각된 인기도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사회적 유능성이 조절변인일 경우 지각된 인기도를 유의하게 예측하지 못하였다. 초등학교 남학생의 경우 관계적 공격성과 지각된 인기도 간의 관계는 일관적이지 못하며, 외현적 공격성이 지각된 인기도를 높이는 효과가 더욱 일반적임을 알 수 있다. 이는 외현적 공격성이 초등학교 때 더 흔하게 사용되며, 외현적 공격성이 남학생의 경우 사회문화적으로 더욱 허용될 뿐 아니라(유안진, 한유진, 김진경, 2002), 공격적 행동을 멋진(cool) 행동으로 보고 인기 있는 것으로 지각하는 경향성이 남학생에게서 더 강하다(김동현, 이규미, 2010)는 것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한편, 여학생의 경우 관계적 공격성은 외현적 공격성을 통제하더라도 지각된 인기도를 정적으로 예측하였으나, 관계적 공격성을 통제하면 외현적 공격성은 지각된 인기도와 전혀 관련이 없었다. 초등학교 5, 6학년 쯤 되면 소녀는 관계적 공격성에 더욱 의존하게 되며(Crick et al., 1996), 소녀에게 보다 규준적이라고 생각하는 관계적 공격성을 통해 자신의 사회적 지위와 인기를 확보, 유지하게 됨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관계적 공격성이 지각된 인기도를 높이는 효과가 소녀에게서 더 강력했다는 선행 연구결과(Cillessen & Mayeux, 2004; Puckett et al., 2008)와 일치한다.

공격성과 사회적 선호도, 지각된 인기도의 관계에서 친사회적 행동이나 사회적 유능성이 조절효과를 보이는지를 검토한 결과, 이러한 조절효과는 남녀 모두 공격성과 사회적 선호도의 관계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다. 즉, 친사회적 행동을 많이 하더라도, 사회적 유능성이 높더라도 외현적, 관계적 공격성이 사회적 선

호도에 미치는 부적 효과를 상쇄할 수는 없었다. 이는 Puckett 등(2008)의 연구와 일치한다. 본 연구에서 친사회적 행동이나 사회적 유능성의 조절효과는 공격성과 지각된 인기도의 관계에서만 유의하였으며, 특히 남학생 집단에서만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초등학교 남학생의 경우, 외현적으로 공격적이라 하더라도 친사회적 행동을 많이 하거나 사회적 유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또래로부터의 인기도가 더욱 더 증가하였다. 한편, 관계적 공격성은 친사회적 행동을 많이 하는 경우에만, 그리고 사회적 유능성이 높은 경우에만 지각된 인기도를 정적으로 예측하였다. 외현적 공격성과 인기도의 관련성은 긍정적 속성이 적게 사용된다고 하여도 유지되었다. 그러나 관계적으로 공격적인 남학생들은 친사회적 행동이 적거나 다양한 사회적 기술들이 부족한 경우, 즉 관계적 공격성이 보다 교묘하고 능숙하게 잘 사용될 수 없는 경우에는 또래집단 내에서 사회적으로 우세하거나 지배적인 위치에 있지 못하였다. 이는 관계적 공격성은 그 자체가 아니라 어떻게 사용되는가가 지각된 인기도를 결정하게 된다는 주장(Puckett et al., 2008; Walcott et al., 2008)과 일맥상통한다.

그러나 이러한 조절효과는 여학생에게서는 나타나지 않았는데, 중 1, 2 학년을 대상으로 한 Puckett 등(2008)의 연구에서 관계적 공격성과 지각된 인기도의 관계를 사회적 자기효능감, 사교성이 조절하였고 이러한 관계에서 성차가 발견되지 않았던 것과 차이가 있다. 우리나라의 초등학교 고학년 여학생의 경우, 관계적 공격성은 그 자체로 지각된 인기도를 높였고 높은 수준의 친사회적 행동이나 사회적 유능성이 함께 사용된다고 해서 지각된 인기

도가 더욱 증가하는 양상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여학생들이 인기 있는 소녀가 인기 없는 소녀에 비해 친사회적 행동을 더 많이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LaFontana와 Cillessen(2002)의 연구결과를 어느 정도 지지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부분은 국내 뿐 아니라 다른 문화의 아동·청소년과의 비교를 통해 재검증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한편, 조절변인이었던 친사회적 행동은 남녀 모두의 사회적 선호도와 지각된 인기도를 정적으로 예측하였다. 이는 타인을 돕는 친사회적 행동이 또래수용이나 거부 등 선호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을 뿐 아니라(Crick, 1996), 또래집단 내 사회적 영향력이나 지배성 등 인기도에도 기여함을 시사한다. 이 결과는 우리나라 중·고등학생들의 친사회적 행동과 인기도 간에 관련성이 없었던 것(도금혜 등, 2006)과는 차이가 있는데, 발달시기별로 친사회적 행동을 많이 하는 것이 또래집단 내에서의 사회적 지위나 영향력에 다른 효과를 가질 수 있음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또 다른 조절변인이었던 사회적 유능성은 사회적 선호도를 예측하지는 못하였다. 즉, 남녀 모두에서 사교성이나 대인적응성, 사회참여도, 주도성 등 사회적 상황에서 필요한 기술을 갖추었다고 해서 그 자체로 또래로부터의 수용이나 선호를 보장받지는 않았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적 유능성은 그 자체로 남학생의 사회적 지위 확보와 유지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동시에 외현적, 관계적 공격성과 지각된 인기도 간의 관계를 조절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여학생의 경우 사회적 유능성은 공격성과 지각된 인기도 간의 관계를 조절하지 않았으며, 관계적 공격성의 맥락에서만 그 자체로 지각된 인기도를 높이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는 대인관계에 민감하도록 사회화되고 그 과정에서 이를 다루는 다양한 사회적 기술들을 개발하게 되는 여학생들의 경우(송경희, 이승연, 2010; Cyranski & Frank, 2000), 지각된 인기도에 미치는 영향력이 그렇게 변별적이지 않기 때문일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공격성 유형과 사회적 선호도, 지각된 인기도 간의 관계를 단순상관이 아닌 위계적 회귀를 통해 보다 깊이 있게 검증한 첫 국내 연구라는데 의의가 있다. 남녀 모두에서 공격성은 사회적 선호도를 일관되게 낮추었으나, 남학생들의 외현적 공격성은 지각된 인기도를 유의하게 증가시켰고, 관계적 공격성 역시 비일관적이긴 하지만 지각된 인기도와 유의한 정적 관련성을 보였다. 여학생의 경우, 관계적 공격성만이 지각된 인기도를 높이는 것을 발견하였다. 특히 남학생의 경우 외현적, 관계적 공격성과 지각된 인기도의 관계가 친사회적 행동이나 사회적 유능성에 의해 조절되면서, 높은 공격성으로 인해 또래들로부터 거부되거나 선호도가 떨어지기는 하지만 사회적 영향력이나 명망은 더욱 높아진다는 것을 보여주었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

횡단연구라는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결과만으로도 학교장면에서 공격성에 대한 개입 노력이 그다지 성공적이지 못했던 이유를 이해할 수는 있을 것이다. 즉, 우리나라 초등학교 고학년에서 공격성은 사회적 선호도를 떨어뜨리긴 하지만, 또래집단 내에서 사회적 우위를 확보하고 유지하게 하는 기능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많은 학생들이 다양한 학교폭력의 유형을 폭력으로 지각하지 못하는 것일 수 있다. 특히 남학생들의 경우 여러 긍정적 속성과 함께 공격성이 능숙하고 교묘하게 사용될 경우 지각된 인기

도는 더 높아질 수 있고, 이러한 조합은 교사나 정신건강 전문가들이 개입 대상을 찾아내는 것부터 어렵게 할 수 있다(Rose et al., 2004; Puckett et al., 2008). 외현적 공격성은 명백하게 행위 자체가 겉으로 드러나게 되므로 상대적으로 쉬울 수 있겠지만, 간접적으로 분노를 표현하고 또래들 사이에서 매우 자연스러운 것으로 간주되는(Young et al., 2006) 관계적 공격성의 경우 여러 긍정적 속성과 결합될 경우 식별이 어려울 것이다. 특히, 인기도가 높은 공격적 학생에 의해 괴롭힘 피해를 당하는 것은 사회적 지위를 높이고자 영향력 있는 또래의 행동을 모방하는 다른 학생들에 의한 공격 행위도 유발할 수 있으므로(Rose et al., 2004), 또래에게 영향력이 있고 인기도가 높지만 공격적인 아동들에 대한 확인과 지도가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공격성이 또래집단 내에서 높은 지위와 인기를 얻고자 하는 아동·청소년의 동기를 충족시키는 역할을 한다면(Peeters et al., 2010), 공격성을 전적으로 부적응적인 것으로만 간주하여 이를 억제하려고만 하는 심리학적 개입은 그다지 효과가 없을 것이다. 공격성의 감소를 일차적 목표로 하기 보다는 또래 집단 내에서 사회적 영향력과 명망을 확보하고 유지하기 위한 다른 긍정적 방법을 함께 모색하고 개발하여 자연스럽게 이러한 긍정적 속성이 공격성이 지닌 기능을 대체할 수 있게 해주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되었던 친사회적 행동이나 사회적 유능성은 공격성 없이도 지각된 인기도를 높일 수 있는 하나의 예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또래괴롭힘과 학급규준의 관계를 살펴본 많은 연구(김은아, 이승연, 2011; Pozzoli & Gini, 2010; Rigby & Johnson, 2006; Salmivalli & Voten, 2004)에서

증명했듯이, 공격성이 사회적 지위를 높이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인식되는 학급의 분위기나 규준을 바꾸는 작업 역시 필수적일 것이다.

한편 공격적이지만 여러 긍정적 속성과 교대로 공격성을 사용하면서 사회적 영향력과 지각된 인기도를 유지하는 사회적으로 유능한 아동들 뿐 아니라, 공격적이면서 사회적으로 거부되고 인기도도 낮은 아동들이 있음을 기억하고, 각 집단의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개입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도 중요할 것이다(Peeters et al., 2010). 예를 들어, 공격적이지만 사회적 기술과 여러 친사회적 특성을 능숙하게 사용하고 또래집단 내의 역동을 움직일 수 있는 아동이라면, 개별적인 공감훈련이나 사회성 기술훈련을 하기 보다는 그 아동이 포함된 전체 집단을 대상으로 사회적 역동과 규준을 바꾸어 나가는 작업이 더 효과적일 것이다.

후속 연구에서는 그 자체로 지각된 인기도를 높이거나 공격성과 지각된 인기도의 관계를 조절하는 다양한 긍정적 속성들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특히 본 연구에서도 드러났듯이 이러한 연구에서 성차를 고려하는 것은 중요하며,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남학생 또는 여학생에게 적합한 보다 효율적인 개입방법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또한 공격성과 지각된 인기도의 관계에서 발달연령에 따른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고려하여 본 연구는 더 어린 연령대나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반복 검증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고윤주, 김영신 (2003). 주의력결핍 및 과잉행동 문제가 있는 아동의 또래수용도와 상

- 호적 친구관계.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6(4), 1-21.
- 김동현, 이규미 (2010). 초등학생의 또래지위와 공격성과의 관계: 선호도, 인기도를 중심으로. 초등교육연구, 23(2), 175-194.
- 김은아, 이승연 (2011). 남녀 중학생의 또래괴롭힘 방어행동과 공감, 자기효능감, 학급규준에 대한 믿음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4(1), 59-77.
- 도금혜, 최보가 (2007). 청소년의 또래집단이 지각한 인기도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학적 변인. 한국청소년연구, 18, 107-134.
- 도금혜, 최보가, 이지민 (2005). 청소년의 사회측정적 인기도 및 지각된 인기도와 공격성과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43, 57-67.
- 도금혜, 최보가, 이지민 (2006). 청소년의 지각된 인기도에 따른 공격성과 자아존중감. 대한가정학회지, 44, 1-11.
- 박금옥 (1998). 청소년들의 자기조정학습방략 정도와 학업성취 및 사회적 능력 연구. 동아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송경희, 이승연 (2010). 청소년의 마음읽기 능력과 또래괴롭힘의 관계: 도덕적 이탈, 도덕적 정서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3(3), 105-124.
- 심희옥 (2007). 또래괴롭힘과 외현과 관계적 공격성에 대한 횡단 및 종단연구: 성별을 중심으로. 한국생활과학회지, 16(6), 1107-1118.
- 이경희, 오경자 (1998). 관계지향 공격성 및 외현화 공격성과 심리사회적 적응간의 관계.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대회 논문집.
- 유안진, 한유진, 김진경 (2002). 초기 청소년의 공격성과 또래관계의 질. 아동학회지, 23(3), 79-90.
- 정승민 (2005). 아동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와 자아개념이 사회적 유능성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청소년폭력예방재단 (2009). 2009년도 전국 학교폭력 실태조사 보고서.
- Adler, P. A., & Adler, P. (1998). *Peer power: Preadolescent culture and identity*. New Brunswick, NJ: Rutgers University Press.
- Aiken, L. S., & West, S. G. (1991). *Multiple regression: Testing and interpreting interactions*. Newbury Park, CA: Sage Publication.
- Cairns, R. B., Cairns, B. D., Neckerman, H., Gest, S., & Gariepy, J. L. (1988). Social networks and aggressive behavior: Peer support or peer rejection? *Developmental Psychology, 24*, 815-823.
- Caravita, S. C. S., Di Blasio, P., & Salmivalli, C. (2009). Unique and interactive effects of empathy and social status on involvement in bullying. *Social Development, 18*, 140-163.
- Cillessen, A. H. N., & Mayeux, L. (2004). From censure to reinforcement: Developmental changes in the association between aggression and social status. *Child Development, 75*, 147-163.
- Coie, J. D., & Dodge, K. A. (1998). Aggression and antisocial behavior. In W. Damon (Ed.),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pp.779-862). New York: Wiley.
- Crick, N. R. (1996). The role of overt aggression, relational aggression, and prosocial behavior in the prediction of children's future social adjustment. *Child Development, 67*, 2317-2327.
- Crick, N. R. (1997). Engagement in gender normative versus nonnormative forms of

- aggression: Links to social-psychological adjustment. *Developmental Psychology*, 33, 610-617.
- Crick, N. R., & Grotpeter, J. K. (1995). Relational aggression, gender, and social-psychological adjustment. *Child Development*, 66, 710-722.
- Cyranowski, J., & Frank, E. (2000). Adolescent onset of the gender difference in lifetime rates of major depression.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57, 21-27.
- Frazier, P. A., Tix, A. P., & Barron, K. E. (2004). Testing moderator and mediator effects in counseling psychology research.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1, 115-134.
- Grotpeter, J. K., & Crick, N. R. (1996). Relational aggression, overt aggression, and friendship. *Child Development*, 67, 2328-2338.
- Henington, C., Hughes, J. N., Cavell, T. A., & Thompson, B. (1998). The role of relational aggression in identifying aggressive boys and girls. *Journal of School Psychology*, 36, 457-477.
- Kupersmidt, J. B., & Coie, J. D. (1990). Preadolescent peer status, aggression, and school adjustment as predictors of externalizing problems in adolescence. *Child Development*, 61, 1350-1362.
- LaFrontana, K. M., & Cillessen, A. H. N. (2002). Children's perceptions of popular and unpopular peers: A multimethod assessment. *Developmental Psychology*, 38, 635-647.
- Lease, A. M., Kennedy, C. A., & Axelrod, J. I. (2002). Children's social constructions of popularity. *Social Development*, 11, 87-109.
- Loudin, J. L., Loukas, A., Robinson, S. (2003). Relational aggression in college students: Examining the roles of social anxiety and empathy. *Aggressive Behavior*, 29, 430-439.
- O'Connell, P. D., Pepler, D., & Kent, D. (1995). *Gender and age differences in types of aggressive behavior*. Poster presented at the biennial meeting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Indianapolis, IN.
- Olweus, D. (1984). Aggressors and their victims: Bullying at school. In N. Frude & H. Gault (Eds.), *Disruptive behavior in schools* (pp. 57-76). New York: John Wiley & Sons.
- Parkhurst, J. T., & Hopmeyer, A. G. (1998). Sociometric popularity and perceived popularity: Two distinct dimensions of peer status.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18, 125-144.
- Peeters, M., Cillessen, A. H. N., & Scholte, R. H. J. (2010). Clueless or powerful? Identifying subtypes of bullies in adolescenc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39, 1041-052.
- Pellegrini, A. D., & Bartini, M. (2000). A longitudinal study of bullying, victimization, and peer affiliation during the transition from primary school to middle school. *American Educational Research Journal*, 37, 699-725.
- Prinstein, M. J., Boergers, J., & Vernberg, E. M. (2001). Overt and relational aggression in adolescents: Social-psychological adjustment of aggressors and victims.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30, 479-491.
- Prinstein, M. J., & Cillessen, A. H. N. (2003). Forms and functions of adolescent peer aggression associated with high levels of peer status. *Merrill-Palmer Quarterly*, 49, 310-342.
- Puckett, M. B., Aikins, J. W., & Cillessen, A. H.

- N. (2008). Moderators of the association between relational aggression and perceived popularity. *Aggressive Behavior, 34*, 563-576.
- Pozzoli, T., & Gini, G. (2010). Active defending and passive bystanding behavior in bullying: The role of personal characteristics and perceived peer pressure.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38*, 815-827.
- Rigby, K., & Johnson, B. (2006). Expressed readiness of Australian schoolchildren to act as bystanders in support of children who are being bullied. *Educational Psychology, 26*, 425-440.
- Rodkin, P. C., Farmer, T. W., Pearl, R., & Acker, R. V. (2000). Heterogeneity of popular boys: Antisocial and prosocial configuration. *Developmental Psychology, 36*, 14-24.
- Rose, A. J., & Swenson, L. P. (2009). Do perceived popular adolescents who aggress against others experience emotional adjustment problems themselves? *Developmental Psychology, 45*, 868-872.
- Rose, A. J., Swenson, L. P., & Waller, E. M. (2004). Overt and relational aggression and perceived popularity: Developmental differences in concurrent and prospective relations. *Developmental Psychology, 40*, 378-387.
- Salmivalli, C., & Viten, M. (2004). Connections between attitudes, group norms, and behavior in bullying situations.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28*, 246-258.
- Swearer, S. M., Espelage, D. L., & Napolitano, S. A. (2009). *Bullying prevention and intervention: Realistic strategies for schools*. New York: Guilford Press.
- Walcott, C. M., Upton, A., Bolen, L. M., & Brown, M. B. (2008). Association between peer-perceived status and aggression in young adolescents. *Psychology in the Schools, 45*, 550-561.
- Young, E. L., Boye, A. E., & Nelson, D. A. (2006). Relational aggression: Understanding, identifying, and responding in schools. *Psychology in the Schools, 43*, 297-312.

원고접수일 : 2011. 06. 10.

수정원고접수일 : 2011. 08. 03.

최종게재결정일 : 2011. 08. 16.

The Relations between Aggression and Peer Status among Elementary Students: Moderation Effects of Prosocial Behaviors and Social Competence

Seung-yeon Lee

Department of Psychology, Ewha Womans University

In a group of 353 elementary students, the present study examined the moderation effects of prosocial behaviors and social competence in the relations between overt/relational aggression and peer status (social preference and perceived popularity). The results indicate that both overt aggression and relational aggression lowered social preference regardless of gender. Prosocial behaviors and social competence did not buffer the negative influence of aggression on social preference. Among boys, overt aggression was a significant predictor of increased perceived popularity. Although inconsistent, relational aggression also predicted boys' perceived popularity. However, among girls, relational aggression, not overt aggression, was associated with perceived popularity. The moderation effects of prosocial behaviors and social competence were significant only among boys. In other words, boys' aggression, although it lowers social preference, contributes to their social influence and dominance when it is effectively combined with positive characteristics. It is necessary to develop new intervention strategies which reflect the adaptive function of aggression within peer groups.

Key words : overt aggression, relational aggression, social preference, perceived popularity, prosocial behaviors, social competence